

보도 일시	배포 시	배포 일시	2022. 7. 6.(수) 09:30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책임자	팀 장	송병관 (02-2100-2690)
		담당자	사무관	허남혁 (02-2100-2695)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 올해 10월 서울에서 총회 개최 결정

주요 내용

- IFRS재단은 ‘22.10.25(화)~22.10.27(목) 3일간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 IFRS재단은 10월 총회 기간 동안 국내 기업과 국제회계기준 간담회 및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 금번, 서울 총회를 통해 IFRS재단과 국내 기업간 회계기준 적용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관련 폭 넓은 소통의 장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

1 개요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명순)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IFRS재단 총회(‘22.6.28(화) ~ ‘22.6.30(목))에 IFRS재단 감독이사회* 한국 멤버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IFRS재단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 : 미·중·일 등의 금융감독 당국으로 구성 (☞ 참고 3)

- 몬트리올 총회에서는 IFRS재단 내 산하 기구인 IASB*, ISSB** 활동 계획 및 전략 방향, IFRS재단의 예산 및 재원조달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 ISSB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아울러, IFRS재단은 이번 몬트리올 회의에서 차기 IFRS재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22.10.25(화)~'22.10.27(목))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IFRS재단 서울 총회는 지난 2010년 한국의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을 기념하여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12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 IFRS재단 이사회(Trustees) 개요 >

- **(역할)** IFRS재단 및 산하조직*을 지배·감독하는 기구 (☞ 참고 3)
 -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 **(기능)** IASB, ISSB, IFRS IC 위원 임명, IFRS재단 자원 조달 및 예산 승인 등
- **(구성)** 의장 1명(핀란드), 부의장 2명(홍콩, 미국), 이사 19명으로 총 22명 (☞ 참고 2)
 - * 한국 이사 : 정덕구 前산업자원부장관('11-'16) → 박수근 前서울대 교수('17-'22)

2 서울 개최의 의미

- 서울 총회에는 IFRS재단 이사회 의장(Erkki Liikanen) 및 21명의 이사 전원, IASB 위원장(Andreas Barckow), ISSB 위원장(Emmanuel Faber) 등 IFRS재단의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합니다. (☞ 참고 1)
- IFRS재단은 이사회 정례회의 外 IASB의 국제회계기준 간담회(outreach)('22.10.24(월)), ISSB의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세미나('22.10.28(금))를 개최할 예정인 바,
 - IFRS재단과 한국 기업이 직접 만나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폭 넓은 상호 이해증진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기구인 IFRS재단 총회를 12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 서울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ISSB 본부가 위치한 국가(독일 프랑크푸르트(3월), 캐나다 몬트리올(6월)) 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총회로서,
 -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개정에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는 IFRS재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 이는 한국이 144개 이상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국가 중 대표적인 非EU, 非영어권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지지함으로써 한국의 회계 관련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 IFRS재단 서울 총회를 계기로, 정부와 회계 관련 유관기관은 IFRS재단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3 향후 계획

- 정부는 회계 관련 유관기관(회계기준원, 한공회 등)과 함께, IFRS재단 이사회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책임자	팀 장	송병관 (02-2100-2690)
		담당자	사무관	허남혁 (02-2100-2695)
<공동>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임자	실 장	최현덕 (02-6050-0166)
		담당자	팀 장	김재호 (02-6050-0175)



참고 1

‘22.10월 IFRS재단 총회 개최 계획(안)

□ (총회 장소) 웨스틴 조선호텔

□ (참석자) IFRS 재단 이사회 의장(Erkki Liikanen), IASB 위원장 (Andreas Barckow), ISSB 위원장(Emmanuel Faber) 등 IFRS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 → IFRS재단 측에서는 약 4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

구분	인원	비고
IFRS 재단 이사	약 22명	Trustees
IASB 위원	약 5명	위원장, 부위원장 등
ISSB 위원	약 5명	"
IFRS재단 사무처	약 10명	사무처장, 총괄이사 등
IFRS재단 합계	약 42명	

□ (주요 일정)

○ IASB의 국내 기업에 대한 IFRS 간담회(outreach) : 10.24(월)

- IASB가 진행 중인 국제회계기준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 개최

* 간담회 주제는 추후 결정

○ 이사회(Trustees) 회의 : 10.25(화)~10.27(목)

- IFRS재단 예산 및 재원조달(안), IASB, ISSB 등 산하기관의 사업 활동 보고, 신임 이사 선임 및 IASB, ISSB의 전략 방향 검토 등

○ ISSB와 회계기준원 공동 세미나 : 10.28(금)

- ISSB가 제정할 국제지속가능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 교환*

* 세미나 주제는 추후 결정

참고 2

IFRS재단 이사회 이사 현황('22.6월말 현재)

지 역	국 가	이 름	주요 약력
유 럽 (7)	핀란드	Erkki Liikanen*	(前) 유럽집행위원회(EC) 집행위원 (前)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재무부장관
	독 일	Erhard Schipporeit	(現) BDO 감독이사회 이사
	영 국	Dame Colette Bowe	(現) 은행기준 위원회 위원장
	프랑스	Michel Madelain	(現) 무디스 투자 서비스 부회장
	이탈리아	Lucrezia Reichlin	(現) 런던 비즈니스 스쿨 경제학과 교수
	호주·프랑스	Ross McInnes	(現) SAFRAN(항공·방위 기업) 이사장
	네덜란드	Else Bos	(現) PGGM NV 이사회 의장
아메리카(6)	멕시코	Jorge Familiar	(前) World Bank 부사장
	미 국	Larry Leva**	(現) KPMG 품질관리 부문 부사장
	미 국	Robert Pozen	(現) MIT Sloan School 부교수
	미 국	Kenneth Robinson	(前) Exelon Corporation 부사장
	캐나다	Maria Theofilaktidis	(現) Bank of Nova Scotia 부회장
	브라질	Alexsandro Broedel	(現) ITAÚ UNIBANCO 재무 임원
아·태(8)	일 본	Masamichi Kono	(前) OECD 사무차장, 日금융청 국제관 차관
	일 본	Keiko Tashiro	(現) Daiwa 증권 부사장
	중 국	Guangyao Zhu	(前) 중국 재무부 차관
	호 주	Joanna Perry	(現) Oyster Property Group 의장
	한 국	곽수근	(前)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홍 콩	Teresa Ko**	(現)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이사
	인 도	Vinod Rai	(現)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초빙 연구위원
	사우디아라비아	Ms. Sarah J. Al Suhaimi	(現) 사우디아라비아 거래소 이사회 의장
아프리카(1)	남아공	Suresh Kana	(現) 남아공 회계기준제정기구 위원장

* 위원장, ** 부위원장

참고 3

IFRS 재단 지배구조

□ IFRS재단은 다음과 같은 3개 층위(Three tiers)와, 7개 주요 기구로 구성



(1) IFRS재단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

- **(기능)** 재단이사회 이사 선임 승인 등 국제회계기준 재단 관리 감독
- **(구성)**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C), 일본, 브라질의 감독당국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2개 분야(기술위원회, 신흥시장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8개 기관

(2) IFRS재단 이사회(IFRS Foundation Trustees)

- **(기능)** IASB 위원 임명, IFRS 재단 정관 개정 승인 등
- **(구성)** 위원장 1명(핀란드), 부위원장 2명(미국, 홍콩), Trustee 위원 19명으로 총 22명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기능)** 국제회계기준(IFRS Accounting Standard) 제정 등
-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2명 총 14명

(4)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기능)**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 제정 등
-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11명 총 14명

(5)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 **(기능)**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 해석서 개발 등
- **(구성)** 위원장 1명, 위원 14명 총 15명

(6) 회계기준자문포럼(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 **(기능)**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에 회계기준 관련 자문
- **(구성)** 12개 국가(지역기구 포함)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위원으로 참여

(7) IFRS 자문평의회(IFRS Advisory Committee)

- **(기능)**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와 IFRS 재단 이사회에 전략 자문 등
- **(구성)** 위원장 1명(미국), 위원 48명 총 49명